

## 격려사

성문스님의 주지 진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, 종단발전을 위해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성문스님의 원력과 의지에 힘입어 동화사가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고 최고의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 확신합니다.

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, 신라시대에 극달(極達) 화상께서 창건한 동화사는 1,5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

**곳으로, 조선 중기 이래로 청허(淸虛)와 부휴(浮休) 선사를 잇는 훌륭한 수행자들이 수행과 중생제도에 모범을 보여 온 곳입니다.**

**이처럼 훌륭한 역사 전통을 간직해 온 동화사의 제 26대 주지로 취임하시는 성문스님은 그 동안 우리 종단과 불교 발전에 앞장 서 왔습니다. 1983년 불교개혁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비상 종단의 핵심으로 종단개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, 우리 종단의 인재 양성**

**요람인 중앙승가대학교가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 산파역할을 하셨고, 또 중앙승가대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한 분입니다.**

**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모시게 된 대구 경북의 시민들과 동화서 본말사의 스님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스님의 뜻을 따라 지역 불교 발전과 화합의 길에 동참하리라 기대합니다.**

**무엇보다도 승가대중의 화합 ·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, 동화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, 대구 경북지역을 다시 한 번 연꽃 활짝 핀 화엄세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**

**특히 내년 8월에 열리는 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 213국에서 6천여명이 참석하고 65억의 지구촌 사람들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제 대회이니만큼 동화사가 앞장서 우리**

**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 
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**또한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  
하고 있는 팔공산관광벨트조성사업과  
팔공산역사문화공원 개발사업도 훌륭한  
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이곳  
팔공산은 불교유적지이자 우리 민족  
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.**

**따라서 이 두 사업은 종교를 떠나  
우리 민족문화를 선양한다는 점에서  
매우 적절하고도 뜻 깊은 일이며,**

**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용  
경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께  
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**

**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마음 씀씀이를  
일컫는 ‘파로대(罷露臺)’라는 말이 있습  
니다. 성문스님은 공심으로 모든 이  
에게 헌신해 온 분입니다. 이런 성문  
스님이야말로 종도와 지역민들로부터  
존경받는 파로대가 될 것이라 믿어  
의심치 않습니다.**

**성문스님의 주지 진산을 거듭 축하하며, 사부대중 여러분과 힘을 합쳐 동화사를 더욱 훌륭한 수행공간으로 가꾸어나가 주시길 기대합니다.**

**지난 4년 동안 주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주신 허운스님의 노력에도 치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며, 새 주지 스님을 도와 앞으로도 변함없이 불교 진흥을 위해 애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**

**감사합니다.**

**불기 2554년 6월 26일**

**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